

시론



박인석
광주문인협회 회장

그리운 은사님 문병란 시인!!

문병란 은사님, 그리운 마음에 불러드립니다. 제가 문학에 대해 불확실할 때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건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방향의 고교시절이 있었고 손에 잡히는 대로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 유추현의 『대원군』, 정비석의 『삼국지』,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한국단편 문학전집』 등을 읽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문학에 심취하게 한 동기는 아무래도 『한국단편 문학전집』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때 저는 보석 같은 한국 문학의 작가들을 하나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광수, 김유정, 채만식, 염상섭, 이상, 나도향, 현진건, 이태준, 김동리, 황순원 등이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새롭게 개안(開眼)할 만큼 명쾌했지요. 한국단편에 심취한 저에게 교수님은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

예프스키, 까뮈 등 세계문학의 거장들을 종횡으로 넘나드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이고, 시창작은 어떻게 하고 등등을 강의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어제처럼 눈에 선합니다. 교수님이 계셨기에 저에게 문학의 영역이 확장되고 열정 또한 커졌다 하겠습니까. 세월로 쳐서 50년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도 생생한 것은 문학의 영원성을 웅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을 지산동 한 주점에 초대했는데 오숙한 밥인 데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교수님은 솔직히 친구와 같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문학수준의 차이에도 이 퇴계와 기고봉이 펼친 사단칠정의 교류처럼 어떤 격차를 갖지 않은 인간적 친근감 그 자체였습니다. 보성 은 한국 문학의 작가들을 하나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광수, 김유정, 채만식, 염상섭, 이상, 나도향, 현진건, 이태준, 김동리, 황순원 등이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새롭게 개안(開眼)할 만큼 명쾌했지요. 한국단편에 심취한 저에게 교수님은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

작을 하시는 저 지 같은 사람에게 교수님은 다른 차원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특히 '사상계'에 발표돼 세상을 뒤집어놓을 듯 놀라게 한 김지하 시인의 담시 '오적'을 강의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당신의 고향인 화순입니다. 세월로 쳐서 50년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도 생생한 것은 문학의 영원성을 웅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을 지산동 한 주점에 초대했는데 오숙한 밥인 데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교수님은 솔직히 친구와 같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문학수준의 차이에도 이 퇴계와 기고봉이 펼친 사단칠정의 교류처럼 어떤 격차를 갖지 않은 인간적 친근감 그 자체였습니다. 보성 은 한국 문학의 작가들을 하나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광수, 김유정, 채만식, 염상섭, 이상, 나도향, 현진건, 이태준, 김동리, 황순원 등이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새롭게 개안(開眼)할 만큼 명쾌했지요. 한국단편에 심취한 저에게 교수님은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

제가 광주대학교에 재직 중일 때 유아교육과에 따님을 보내시고는 새벽에 쓰신 장문의 편지로 잘 보살피시라고 하신 서신에서 자별한 부정(父情)을 느꼈습니다. 그 뒤에 교수님께서 독재정권에 맞서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가깝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행히 후학이나 제자들이 은사님의 문학적 토양을 만드셨다는 말씀도 그리 신기할 수가 없었지요. 교수님께서 젊은 날 고전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하셨는데 그리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저에게는 대학 시절에 시작품보다는 현대단편소설 위주로 흥미가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청준, 황석영, 김소유, 조세희 등을 독서하면서 나를 유독 사로잡았던 작가는 최인호였고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별들의 고향'에 몰입했었지요. 술을 마셔도 울포 어는 횡집에선가 동행한 사람들의 좌중대화를 주도하시고 즉석에서 시도 읊으시고 술도 맛있게 드셨지요. 현대시를 창작하고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문론과 산문 그 모두를 실로 해박하게 넘나드셨지요. 언제 술 마시고 언제 독서하시고, 언제 작품 창

자치칼럼



이경양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내가 아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나?

고고성(呱呱聲·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우는 소리)이라는 말이 있듯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다. 이를 두고 살아갈 일이 두렵고 걱정스러워 내지는 소리 또는 환하고 넓은 세상에 나오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소리라고도 한다. 울음의 연유야 어쨌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아는 사람, 아는 것, 가진 것이 제법 많다. 그중 아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네 인생이란 결국 사람들과의 얽 차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는 걸까? 내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디까지 무엇을 안다는 말이며 그의 의가 무엇일까. 흔히 아는 사람을 친구(親舊)라 일컫는다. 요즘엔 SNS가 확산되면

서 인친(인스타그램 친구), 페친(페이스북 친구), 트친(트위터 친구) 등을 비롯하여 실친(실제 친구)까지 친구의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도처에 수천 수만의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친구라고 여기며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진화생물학 교수 로빈 단바가 쓴 『발칙한 진화론』(김정희 역, 21세기북스)이라는 책이 있다. 원래 제목은 "우리는 게는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How many friends does one person need?)"로서 친구의 숫자를 다루고 있다. 단바는 1970년대 아프리카에서 야생 원숭이들의 집단생활을 수년 동안 관찰해본 이 인간 등 영장류의 뇌 용량은 한계가 있어 친밀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 15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집단의 크기와 대뇌 신피질의 크기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개코원숭이, 짧은꼬리원숭이, 침팬지 사회 등에서 확인한 신피질과 집단 규모의 상관관계에 기초해 추정하면 평범한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바는 수렵 채집 생활(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 집단사회)을 하는 수십 개의 부족 사회의 평균 규모가 153명이고 영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1인 평균 68곳에 보내고 그 가족을 포함하면 약 150명이었음을 조사해 밝혀냈다. 또 로마군의 기본 전투단위인 보병 중대는 약 130명, 현대 군대의 중대 단위로 세 개 소대와 지원 병력을 합쳐 대개 130-150명,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독교 개신교의 근본주의 일파인 아미시(Amish) 공동체의 규모도 평균 110명임을 보고하고 있다. 결국 단바는 진짜 친구(한 사람이 사귀면서 믿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예고 없이 불속 저녁 자리나 술 자리에 합석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진짜 친구의 수를 '단바의 수(Dunbar's Number)'라고도 하는데 150은 SNS를 통해 디지털 세대의 친구 숫자가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난 상황에서 아무리 새로운 기술 도구를 통해 인맥이 확대되더라도 숫자의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나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실제로 살아가면 서 친밀감을 느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즉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지만 인도인들은 '나의 슬픔을 대신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기쁘고 달콤한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 짐으로 여기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친구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인도인들은 나무를 '서 있는 큰 친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자리에 서 있기에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큰 모습이나 다르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존 공생하는 나무가 친구라는 말일 터이다. 곧 나와 한 몸 공동체로 여겼기에 가능한 말이다. "유백두여신 경계여고 하죽 지여 부지야(有白頭如新 傾蓋如故 何則知與不知也)"(사마천의 사기(史記) <노중련추양열전(魯仲連鄒陽列傳)>)라는 말이 있다. "백발이 되도록 오래 교제하여도 새로 사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수레를 멈추고 잠깐 만났어도 오랜 친구 같은 사람이 있다. 이는 어찌 그런가? 이는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이다"는 뜻이다. 한 해가 가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 공동체를 이룰 친구는 몇 명이나 되나?"고 묻는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심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겨울철 3대 난방기구 사용 안전 수칙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0년간 발생한 난방기구 화재는 총 8천544건이었다. 기기별로는 전기장판(2천443건)과 전기히터(2천186건)로 인한 화재가 가장 건수가 많았다. 겨울철만 되면 연평균 화재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부쩍 잦아진다. 이에 사용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하게 난방기구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전원 기구(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첫 사용 시 전원을 연결한 후에 문제가 없는지 한 시간 이상 지켜본 후에 사용한다. 전열부 주위에 먼지 등을 제거하고 전선을 살펴

보고 파손된 곳이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선은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전기장판의 경우 온도조절기와 피복 플러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과부하·과전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중한 인장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누전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 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라텍스(천연고무) 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장판이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면 중에는 온도조절기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해야 한다. 전기 히터를 사용할 때 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하고 과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1-2시간 사용 후에는 잠시 꺼두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전기 열선 같은 경우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말아야 하고 열선 주위에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오래된 열선은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끝으로 화복보일러를 사용할 때

는 한꺼번에 연료를 많이 투입하면 과열하여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폭 연료를 적당량 투입하고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보일러실 인근에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을 갖추어 유사시에 항상 대비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살펴봤다. 철저한 사고 대비와 예방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으로 이어진다.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김재혁·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 괴롭힘 심각하다니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가운데 6명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 또 10명 중 4명은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라남도의회 지원정책 연구회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수행 중인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설문에 따른 내용으로 사전 예방과 구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매뉴얼 개발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7%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를 당한 종사자는 55.9%였고, 목격자도 40.1%에 달했다. 여성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직급에서는 중간관리자 60%, 실무자 57.8%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업무환경 악화 48.1%, 정서적 괴롭힘 41.7%, 정신적 괴롭힘 27.5%의 순이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목격자들은 무력감과 2차 피해를 두려워해 대부분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됨에도 참고 넘기는 도리 밖에 없는 아픈 현실이다. 가슴의 멍만

케치고 있다.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남은 사회복지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위기 가구도 늘면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시설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사기가 꺾이게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진다. 현장에서의 서비스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대우마저 흡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명감을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증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특히 좌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종사자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봉사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언발에 최중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정당한 권익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자료로 잘 활용됐으면 한다.

추모와 기억의 공간으로 부활할 옛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며 기억하는 공간으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협의회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발주하고 내년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복원 대상은 본관과 별관, 회의실, 상무관, 경찰국 및 민원실 등 6개 동이며 별관은 문화전당 진입을 위해 기 철거(24m)한 부분 중 일부를 제한이 불가피하고 경찰국 본관은 안전성을 감안해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미디어월은 철거해 다른 위치로 이전한다. 미디어월은 지난 5년 동안 A CC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상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총사업비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49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255억원에서 243억원(95%) 늘어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본격에도 올랐다. 협의회는 '고층이 이뤄진 공간 안에 서사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당시 배치된 물품과 사진, 영상, 음향, 그래픽, 실감 미디어 등을 통해 관람객이 5월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시될 사진 자료는 1만6천534장을 수집해 확인·분석했고 증언과 구술 채록 4천416건을 확보했으며 내년 말까지 공간별 세부 구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증된 사실에 근거한 역사 전달과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980년 5월27일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섰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은 참혹했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더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확장해 의관은 물론 내부까지 원래 그대로 완벽하게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껏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으로 많이 지연됐다. 광주의 자랑스런 역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뜻깊은 사명이다.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아침은은 詩

겨울 소식

조태일

광주를 온몸에 흠뻑 적서 터벅터벅 그 친구는 서울에 와서 늘 외롭고 힘없는 내 손을 쥐고 눈과 손으로 광주를 건네주지만 내 허전한 마음까지 건넬면 쓰나 내 찌든 몸까지 건넬면 쓰나 찬바람 속에서 광주는 큰 애를 뺏다더러. 찬 눈에 덮여서도 무등산은 그렇게도 우람한 만삭이더라. 광주를 온몸에 적서서 서울의 내 곁에 사할뻔 놓아두고 터벅터벅 서울을 떠나버리는 친구!

(시집 '다시山河에게', 미래사, 1991)



[시의 눈]

"애야 좀 쉬어 가자" 화순으로 휘는 바람재에 아비는 짐을 부립니다. 아내가 싸준 고구마를 나눠 먹습니다. 김 서방은 15살 아들과 함께 장불재를 넘은 중입니다. 이서장을 보려고 새벽에 나섰지요. 꼬음, 오랜 장먼지 힘으로 큰 붓짐을 일으킵니다. 그는 매달 남대문 시장으로 계절옷을 떼러 갑니다. 고향 친구가 사정을 듣고 소개한 백 사장네 가게지요. 옷을 고르며 소식도 골라 전합니다. 서로 '허전한 마음'은 빠지요. 가난한 보부상이지만 무등처럼 배부르다 말합니다. 한때 끼니 걱정을 했으나 산은 큰 연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내일은 화순장 모래는 담양장 굴피는 부자들의 향정장을 뚫니다. '광주를 건네주는' 친절한 장사꾼이 되어가지요. 사십여 년 전 오월 총칼을 꽃바람처럼 맞으며 누이를 잃었지요. 소낙비 질펀한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습니다. 중풍 낙엽엔 그녀가 오는 듯 버석버석 환상 행진곡이 들렸지요. 이제 그녀는 풍찬 아이를 안은 한 어머니로 바뀌었군요. "애야 가자" 어머니가 부르듯 걸음을 빨리합니다. 저만치 아들이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아, 버거지 속엔 함박눈이듯 웃음조차 열렸군요. 조태일(1941-1999) 시인은 전남 곡성에서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식칼' (1970), '국토' (1975) 등을 썼습니다. 그는 70년대 독재에 저항하며 여러 번 옥고를 치렀으며 끝까지 울골은 국토의 시인으로 남았지요.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공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사건진보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